

습득은 물결로

통권 283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4 2023



해수유통 석문호를 살리자!

지난 3월 18일 석문호 앞에서 30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석문호 해수유통 촉구 캠페인과 석문호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ONTENTS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석문면민 ‘불산공장 입주 저지’ 투쟁 돌입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터진 그날... “노후핵발전소 연장 말라”

- ▶ 발행일 2023. 4.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 이근대
- 4 **윤리규정 제정**
- 7 **지역환경초점1**
| 석문호 수질개선은 해수유통으로부터
- 8 **지역환경초점2**
| 당진시, 산업폐기물 배출량 전국 3위
- 10 **지역환경초점3**
| 석문면민 ‘불산공장 입주 저지’ 투쟁 돌입
- 11 **지역환경초점4**
| 구룡동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추진에 주민들 발칵
- 12 **지역환경단신1**
|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 13 **지역환경단신2**
| 기후위기 충남행동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 14 **지역환경단신3**
|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한화진 장관 사퇴하라”
- 15 **전국환경초점1**
|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 16 **전국환경초점2**
| 기후 대응 포기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라!
- 18 **전국환경초점3**
|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터진 그날... “노후핵발전소 연장 말라”
- 19 **3월 살림살이**
- 20 **3월 활동소식**
- 22 **4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이근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바람도 담아두면 나를 흔들 때가 있고,
햇살도 담아두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울 때가 있다

아무리 영롱한 이슬도
마음에 담으면 눈물이 되고,
아무리 이쁜 사랑도
지나가고 나면 상처가 되니
그냥 흘러가게 놔둬라...

마음에 가두지 마라
출렁이는 것은 반짝이면서 흐르게 놔둬라.
물도 가두면 넘칠 때가 있고,
빛깔도 가두면 소리내어 넘칠 때가 있다.

아무리 즐거운 노래도
혼자서 부르면 눈물이 되고,
아무리 향기로운 꽃밭도
시들고 나면 아픔이 되니
출렁이면서 피게 놔둬라.

작가소개

이근대

- 1965년 6월 경남 함천 출생
- 89년 12월 시전문 무크지 [지평.8]집으로 작품활동
- 부산시인협회 사무처장(2001-2002)
- 계간 시전문지 [시와사상] 편집동인, [신서정시동인]
- 현재 [시전담] [심상시인회의] 동인

(사)당진환경운동연합 윤리규정

제정 2023.03.21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시민단체 활동을 위하여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품위와 본 법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법인의 활동목적과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은 본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⑧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은폐·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임직원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임직원은 상호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 등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0조(위반행위 신고와 징계)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이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본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⑥ 이사장은 이 규정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이사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윤리교육)

이사장은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신규 임용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의 운영)

이사장은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간담회 관련자 징계, 황성렬 공동의장 사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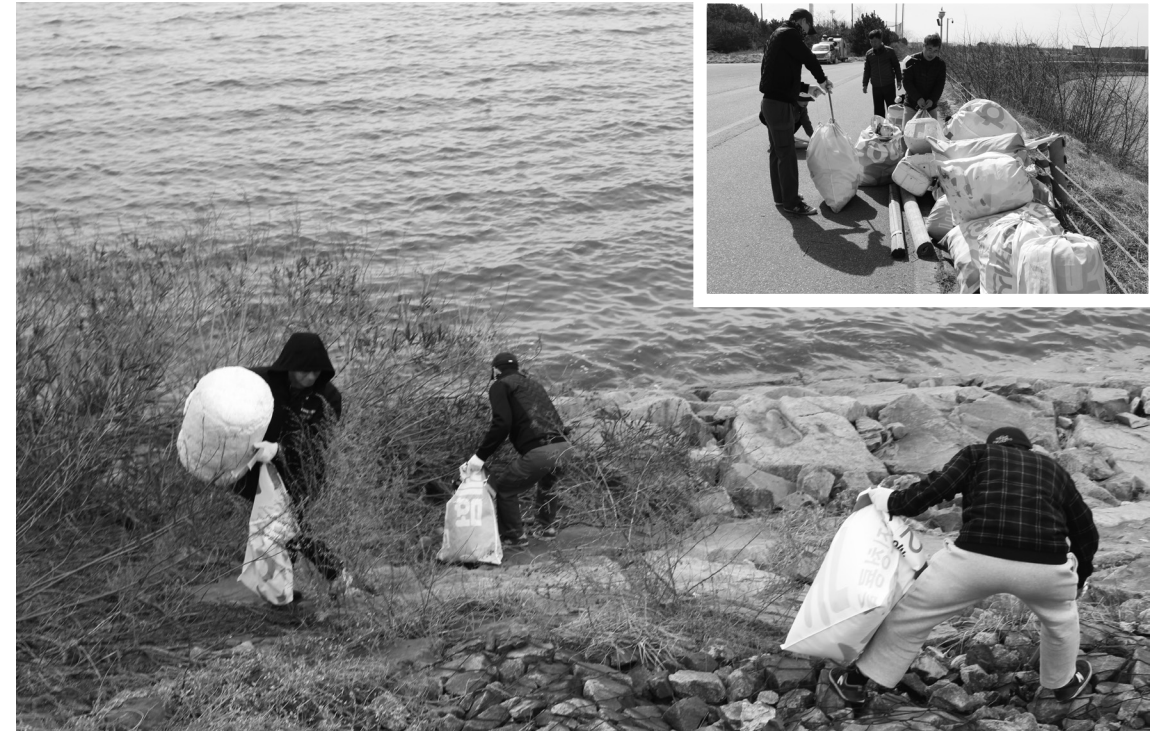
최근 언론에 보도된 2월 15일 간담회와 관련하여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관련자 징계, 윤리규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 윤리적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환경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3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자 징계와 윤리규정 제정 등 후속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성렬 공동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동의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3월 1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3월 21일 윤리규정을 제정해 앞으로 단체를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창립 이후 20년이 넘는 동안 환경단체로 활동하면서 명확한 윤리규정이 없이 운영해온 문제점을 통감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한 윤리적 단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다짐했다.

〈글: 사무국〉

석문호 수질개선은 해수유통으로부터



석문호 살리기 캠페인 참가자들이 석문호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해수유통! 석문호를 살리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질오염이 특히 심각한 석문호의 경우 예전 시화호처럼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석문호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된 시점부터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며 “물의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다면 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다. 석문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심각한 수질오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캠페인은 실천운동으로 석문호 쓰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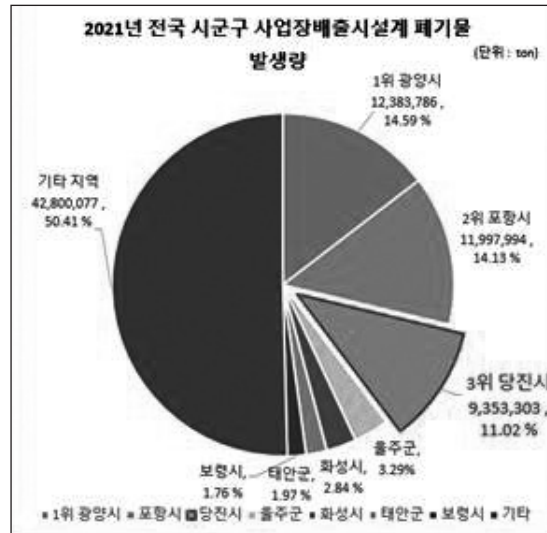
치우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원당중학교 1학년 정빛나 학생은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캠핑을 하면서 버려진 쓰레기가 더 많아서 놀랐다”면서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인해 얼마나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년 변하는 물의 날 주제는 2023년에는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로 기후 변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과 위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변화의 노력을 가속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출처: 당진신문]

당진시, 산업폐기물 배출량 전국 3위

광양·포항·당진 배출량 상위 3개 지역 제철소 입지
당진은 대규모 제철소에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운영
“폐기물 재활용률 높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을 보면 △1위 광양시 △2위 포항시 △3위 당진시 등 배출량 상위 3개 지역이 모두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한 지역”이라며 “상위 3개 지자체에서 배출한 산업폐기물이 전국 배출량의 3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포항·당진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일관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공정 특성상 철강슬래그 등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화력발전소와 비슷한 규모의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이 입지한 태안군과 보령시의 경우 각각 167만12톤과 149만2065톤을 배출해 전국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 폐기물도 상당히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송산2일반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제이엔텍은 2021년 한 해 동안 7만2380톤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해 폐기물 처리량이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제이엔텍은 최종처분(지정) 매립 승인 면적에서도 11만1041㎡로 전국 6위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면적은 금

당진시의 2021년 기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이 935만3303톤(11%)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상위 3개 지역 모두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월 공개한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진시의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에서 3월에 발간한

순위	지역	배출량 (단위:ton/year)
1	광양시	12,383,786
2	포항시	11,997,994
3	당진시	9,353,303
4	울주군	2,795,674
5	화성시	2,407,325
6	태안군	1,670,012
7	보령시	1,492,065
-	기타	42,800,077

강유역환경청의 1단계 및 2단계 승인 면적으로 전체 면적과는 차이가 있다.

최종처분(지정) 매립 승인 용량에서도 제이엔텍은 247만2225㎡로 전국 9위에 해당했으나, 이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의 1단계 지하부 및 2단계 지하부(2단계 지하부는 수직으로 계산된 용량은 아님)로 전체 용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제외) 처리량에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입지한 이클린위터가 9691톤으로 전국 11위, 이엔위터솔루션이 8116톤으로 전국 13위를 기록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처리량에서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

순위	지역	배출량 (단위:ton/year)
1	경북	15,283,926
2	충남	14,796,397
3	전남	14,211,192
4	경기	12,427,790
5	경남	5,652,743
6	인천	4,710,808
7	울산	4,417,248
8	전북	3,059,878
9	충북	2,917,680
10	강원	2,268,869
11	부산	1,404,925
12	서울	1,037,142
13	대구	892,899
14	대전	742,752
15	세종	423,026
16	광주	400,279
17	제주	252,682

지한 대성에너지가 5만7987톤으로 전국 9위를, 충청환경에너지가 3만5239톤으로 전국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매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보도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려는 노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의 경우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입지한 만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당진시대]

석문면민 '불산공장 입주 저지' 투쟁 돌입

행정소송 제기한 램테크놀러지 2차 변론 마쳐..4월 5일 1차 선고
석문면개발위,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대책위 구성..반대 시위 나서



지난 4월 3일 석문면 주민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대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함께 진행 했다.

석문산단에 불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 램테크놀러지의 입주를 막기 위해 석문면 주민들이 투쟁에 돌입했다.

2020년 (주)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에 불산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당진시는 공장의 안전성을 두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에 업체 측은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 불산공장 불허가를 한 당진시 손을 들어줬고, 이에 (주)램테크놀러지는 재결서의 내용을 검토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이후 당진시는 (주)램테크놀러지와 행정소송을 이어나갔고, 지난 8일 2차 변론을 마쳤으며, 4월 5일 1차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당진시는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불산공장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도 언급했

다”며 “시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4일 (사)석문면개발위원회는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략)

특별위원회는 불산공장 입주 반대 서명과 집회를 열고, 법원 앞 주민 시위를 통해 불산공장 입주를 막을 예정이다. 이에 지난 13일부터 석문면 주민들은 대전법원 앞에서 불산공장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석문면개발위 조세현 사무국장은 “(중략)법원의 1차 선고를 앞두고 있고, 주민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판단해 (중략) 13일부터 주민들은 하루씩 법원 앞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강력하게 공장 입주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구룡동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추진에 주민들 발각

지난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당진시에 접수
구룡동 비롯해 인근 마을 주민 300명 반대 집회
승전목 폐기물재활용시설은 당진시 부적합 통보



3월 16일 구룡동·사기소리 주민들이 옛 구룡휴게소 앞에서 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를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룡동에 위치한 옛 구룡휴게소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신청이 당진시에 접수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벽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800톤의 건설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5720㎡의 폐기물 보관시설과, 파쇄시설, 선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현재 각 관련 부서에서 입주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6일 옛 구룡휴게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주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구룡동 주민 뿐만 아니라, 사기소동, 용연동, 정미면 대운산리와 인접해 있는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 주민들까지 참여했다.

지영복 대책위원장은 “(중략) 고압철담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 (중략) 이어 “채석장으로 인해 분진 피해까지 받아왔는데, 이제는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은 피해만 입고 살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중략)

한편 면천면 사기소리 승전목 전승지 인근에 추진했던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당진환경연합, 커피박 주방비누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탄소중립 실천대회 참가한 시민들이 커피박 주방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2일 당진시청 대강당과 야외무대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가 개최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에너지전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대회는 충남 16개 시군을 순회하는 릴레이 행사의 첫 시작으로 당진시는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라는 주제로 기업 등 민·관 단체가 함께하는 실천 다짐 대회를 준비했다.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대회는 실내 행사로 △탄소중립 관련 영상상영 △충남도 및 당진시 2045 탄소중립 정책방향 발표 △탄소중립 주제 특강 △기업 탄소중립 계획 발표 △주요 기업과의 탄소중립 실천 협약식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야외에서는 탄소중립 연극과 OX 퀴즈, 나눔장터 및 각종 체험행사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시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알렸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야외 마당에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주방비누 만들기와 재생에너지 홍보 및 재생에너지 가짜뉴스 OX퀴즈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에너지전환, 탈석탄 등 탄소중립 실천을 적극 촉구하기 위해 이날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대회는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글: 사무국]

기후위기 충남행동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22일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 갖고 ‘충남에서부터 저항’ 예고



3월 22일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22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됐다. (중략)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부담만 줄인 게 핵심’이라면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고, 원자력발전 확대 등으로 축소분을 대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은 “계획 기간에 포함된 204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분석 역시 들어가 있

지 않았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과정에서도 절차적 비민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략)

또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18년 대비 40% 감축 설정된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를 하면서도 산업계의 감축 부분만 줄인 것이 핵심이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고 감축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채운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중략)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계획이 70만 톤이다. 그 이후에 감축 계획이 1억 6천만 톤이다. 이 정부에서 탄소 감축은 이후 정권에 넘기겠다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가 없으면 충남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이하 생략)

[출처: 뉴스스토리 일부 발췌]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한화진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 14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생태계 말살하는 환경 파괴부” 성토



충남·충북·전북·대전·세종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달아 대한민국 전체를 난개발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독자적인 부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는 환경부는 간판을 떼고 국토부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1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등 환경부가 잇달아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자, 이를 성토했던 것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6 곳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

손창원 충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지 1년만에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채 흑산도 공항,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그동안 반려하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들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략)

이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요구사항을 구호로 외쳤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과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석탄을 넘어서’, 삼척에서 1박2일 탈석탄 캠페인



▲ 탈석탄 캠페인 참가자들이 삼척블루파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 8명의 참가자들이 삼척 시내에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서 ‘탈석탄,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당진의 탈석탄에너지전환 사례와 삼척의 탈핵투쟁 사례에 이어, 삼척 탈석탄 투쟁에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31일 오전에는 맹방해변에서 탈석탄을 촉구하는 연날리기에 이어 삼척블루파워 본사 앞에서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삼척블루파워 본사에서 삼척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삼척시민들에게 삼척 석탄발전 중단을 알렸으며 삼척시청 앞에서 1박2일 탈석탄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글: 사무국]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국 탈석탄 활동가들이 참여할 가운데 삼척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탈석탄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석탄을 넘어서는 30일 탈석탄 세미나, 31일 탈석탄 연날리기, 해상캠페인, 삼척블루파워 앞 기자회견, 거리행진 등의 내용으로 삼척 석탄발전 중단을 촉구했다.

30일 탈석탄 세미나는 삼척지역사회연구소에

[성명서]

기후 대응 포기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라!

내용도 졸속, 절차도 졸속, 감축 책임은 다음 정부로 떠넘겨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한겨레)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인가? 내용과 절차 모두 졸속으로 추진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3월 22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임에도 내용과 절차 모두 졸속으로 추진돼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계획기간(2042년까지)에 맞춰 수립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NDC')를 일부 수정한 내용에 불과하여 탄소중립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에서 사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내내 무

시로 일관하다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계획을 수립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연평균 2% 정도 서서히 감축하다가 차기 정부 임기 동안에 총 감축량의 75%를 몰아서 감축하고 특히 2029년에서 2030년 사이 1년 동안에만 13.6%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세운 2030NDC에서 감축목표가 14.5%에 불과하여 감축목표가 27%~46%인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낮은 목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에서는 부족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11.4%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하향했다.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변화되고 있는 국제 경제동향을 살피기는 커녕 산업계 민원해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 하향에 따른 추가 배출량 800만톤은 전환부문(전기·열 생산)에 400만톤, 국제감축에 400만톤을 떠넘겼다.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 감축 여력이 있다며 감축목표를 400만톤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030NDC의 신재생에너지 목표30.2%를 21.6%로 8.6% 축소하고 핵발전을 확대했다. 1월에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해 놓고 이번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전환부문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국제감축도 기존 2030NDC 감축목표에서 400만톤을 상향했다. 그러나 연도별 감축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가 쉽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국제감축을 축소하고 국내감축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연도별 감축계획도 없고 감축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감축은 목표를 오히려 하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말로만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강화하고 국제감축이나 CCUS(탄소포집이용저장)같은 불확실한 수단은 감축 목표를 하향해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감축의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전환(발전)부문에서 탈석탄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이번에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절차도 내용도 졸속일 뿐 아니라 탄소중립 추진에 역행하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23년 3월 2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터진 그날... “노후핵발전소 연장 말라”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한 회원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외치며 탈핵 행진에 함께 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 모인 3천여명의 탈핵집회 참가자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인 우리나라에서 옛 소련 체르노빌(현 우크라이나)과 후쿠시마원전에 이어 대형 원전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정책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날 행사는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와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며 대구·광주·제주·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경부고속철도·비행기 등을 타고 부산으로 달려왔다. (중략)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핵발전소를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영광 핵발전소는 2030년에, 고리 핵발전소는 2032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3시15분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변화가인 부산진구 서면 금강제화 앞까지 1.3km를 행진했다. 사전 집회를 허가한 경찰은 1개 차로를 집회 주최 쪽에 내줬다. 거리행진은 차량 흐름에 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이어졌다. (중략) 참가자들은 오후 4시15분께 서면 금강제화에 이르렀고 정리집회를 한 뒤 해산했다. (이하 생략) [출처: 한겨레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3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1,402,476	인건비	급여	4,600,000
회비	개인회비	7,710,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9,620
계		7,780,000	계	5,484,90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176,310
계		-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2,141,270
	계	-	기타운영비	1,417,4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3,734,98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702,4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33,000
	계	-		생화환경사업	38,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1,544,22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614		연대사업	614,000
	계	614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2,931,620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27,031,590
				계	27,031,590
월수입 총계		7,780,614	월지출 총계		12,151,500
수입 합계		39,183,090	지출 합계		39,183,090



3월 운영위원회 개최

3월 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3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5차 공론장

3월 17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5차 공론장에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캠페인

3월 8일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캠페인을 당진환경운동연합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지구의날 기념 당진천 걷기 준비위원회 회의

3월 15일 당진지속협 사무실에서 지구의날 기념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옥시애경 불매 1인 시위

3월 20일 당진구터미널에서 옥시애경 불매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4/03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반대 출근 홍보활동 - 대전법원 앞 지구의 날 기념 행사 준비 회의 - 당진지속협
- ❖ 4/04 당진에너지전환포럼 운영위 회의 - 사무실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 회의 - 당진지속협 4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4/05 에너지전환포럼 '한국사회 대전환 전략과 과제' 토론회 - 온라인
- ❖ 4/05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 당진에코생협
- ❖ 4/06 환경의 날 기념 사업 준비 회의 - 당진시청
- ❖ 4/06~4/07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 - 광주
- ❖ 4/11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4/12 산업단지·산업폐기물 매립장 토론회 - 내포혁신플랫폼
- ❖ 4/14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총회 - 내포혁신플랫폼
- ❖ 4/15 지구의 날 기념 당진천 벚꽃길 걷기대회 - 당진어름수변공원
- ❖ 4/17 가슴기 살균제 가해기업 불매 캠페인 - 미정 RE100 동향과 당진의 대응방안 세미나 - 당진시청
- ❖ 4/18 인권 현안 대응 당진시민사회 간담회 - 당진비정규직센터
- ❖ 4/22 지구의 날 기념 기후행동 - 당진화력, 현대제철 앞
- ❖ 4/24 자원순환 병 재활용 현장 탐방 - 맥키스컴퍼니, (주)성인
- ❖ 4/25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연수 - 당진화력 일대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4/27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체회의 - 온라인
- ❖ 4/28 환경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6차 공론장 - 온라인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4/25(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탄정 간 345kV 송전선로

새내기 회원

대성종합공구(대덕동) 이혜정(천안시) 손지예(천안시) 이혜슬(천안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연화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린 김재성 김재진 김정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준근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훈 남정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영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미상 박미현 박보근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용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경라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순영 이순호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규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선 이혜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자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 4월 5일 입금기준입니다.

2023년 지구의 날 기념

탄소중립 지구지킴이 초록 발자국

제19회 당진천 벚꽃길걷기

2023. 4. 15.(토) 오전6시30분
당진천 어름수변공원

- 푸짐한 경품(자전거 등)과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OX퀴즈(주방비누 증정)와 '지구에게 한마디'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지구의 날 기념 당진기후행동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석탄) 사용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앞에서 기후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4월 22일(토) 14시~16시(14시 사무실 출발)
- 장 소**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앞
- 참가문의** 355-7661